

# 노년기 빈곤

Age UK

policy@ageuk.org.uk

---

## 서론

Age UK 는 현재와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이 민관 자원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온전한 사회참여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영국 내 많은 수의 노인이 빈곤과 재정적 불이익으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은 영국의 연금 수급자 빈곤 수준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및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집단을 살펴보고 저소득층 노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지 고찰한다.

## 요점

- 현재의 빈곤 수준은 20 년 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연금 수급자 중 210 만 명(18%)이 빈곤에 처해 있다. 이는 160 만 명(14%)이 빈곤층이었던 2013~2014 년부터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 일부 그룹은 더 큰 위험에 처했다:
  - 개인 세입자의 38%와 공공 부조 세입자의 36%가 빈곤층인 반면, 자신의 집을 소유한 노인 중 14%만이 빈곤층이다.
  - 아시아인 및 아시아계 영국인 연금 수급자의 33%와 흑인 및 흑인계 영국인 연금 수급자의 30%가 빈곤층인 반면, 백인 연금 수급자는 16%만이 빈곤층이다.
- 재정적 불이익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처럼 비용이 더 들거나,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 정부는 노년의 빈곤을 철폐하기 위해 제 3 섹터(반관반민) 기구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명확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 이상적으로 정부 연금제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편안한 은퇴를 위한 추가적인 개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한편으로는 급여 수급권을 늘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수행되어야 한다.

## 빈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사회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 빈곤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경우는 식비나 전기세 부담이 어렵고, 모든 지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요리 기구가 고장나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처할 비상금이 없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사고 클럽에 갈 교통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들일 수 있다.

빈곤과 저소득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욕구와 처한 상황은 다양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빈곤에 대한 정의는 '현재 중위 가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 때 각 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한다.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본 글은 빈곤을 위와 같이 정의하며, 필수 주거비용을 충족한 후 산출된 수치를 사용한다. 해당 수치는 연간 DWP 평균 소득 이하 가구 (HBAI; Households Under Average Income) 통계를 참고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빈곤을 고려하는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 물질적 결핍. 이는 특정 물품이나 재화가 부족한지 조사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HBAI 보고서에서도 다루었다 (아래 참조).
- 최저 소득 기준. Joseph Rowntree Foundation 이 발표한 포괄적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 비용에 대해 살펴본다.<sup>1</sup>
- 자기 보고식 측정. 스스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소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기반한 측정. 예를 들어, Social Metrics Commission 은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고, 또 사용 가능한 모든 저축을 고려하는 측도를 개발하고 있다.<sup>2</sup>

## **왜 은퇴 후 빈곤에 처하게 되는가?**

개인의 은퇴 후 재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친 삶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 특히 사적연금 보험의 경우 근로 시간과 소득 수준 등 고용 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개인 퇴직 소득이 낮는데, 이는 평균 소득이 낮고, 경력 단절의 시간을 겪거나 자녀 양육 및 노인(장애인) 친척(지인) 돌봄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 전/후 시기 저소득과 관련된 기타 요인으로는 소수 민족 여부, 장애 여부, 돌봄노동 여부 및 자영업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중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영향은 연금 정책 연구소(Pensions Policy Institute)의 '불충분 연금 수령자'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되었다.<sup>3</sup>

평생 동안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은퇴 자금은 사람들의 저축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인 노후(경제) 계획이라도 질병, 해고, 사별 또는 관계의 단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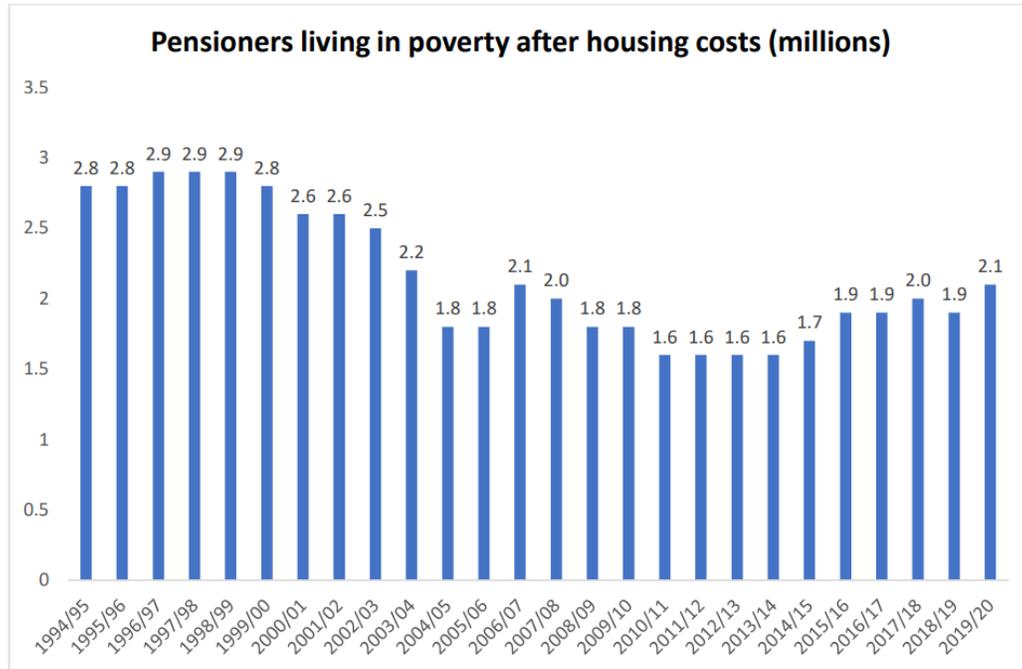
은퇴한 후에는 연금 소득이나 저축을 늘릴 기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회 보장 수급을 신청하여 재정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우려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추계에 따르면 영국 연금 수급자들의 미신청으로 인한 연금 및 주택 혜택 예산 미사용액은 한 해 동안 약 22 억 파운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sup>4</sup> 노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구 절차로 인해 신청할 열의를 잃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꺼려 어려운 상황을 홀로 감내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영국 연금 수급자의 빈곤 수준과 변화 추이**

앞에서 언급한 빈곤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정의(주거비를 제외한 일반 가계 소득의 60% 이하)를 적용할 때, 연금 수급자 중 210 만 명(18%)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sup>5</sup>

빈곤에 처한 연금 수급자의 수는 20 년 전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소세는 21 세기의 초반 10 년 간 일어난 것이다. 2010/2011 년부터 2013/2014 년까지 빈곤층인 사람 수는 160 만 명 선에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하지만 최근 그 수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 210 만 명에 이르렀다.<sup>6</sup>

[그림 1. 연금 수급자 중 빈곤층의 수 (단위: 백만명)]



출처: 평균 소득 이하 가구: 회계 연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DWP 2021. (주택 비용을 공제 후)

빈곤층의 절대적 숫자가 아닌 비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주택 비용을 제한 후, 1998/1999년 연금 수급자 중 29%는 빈곤층이었고, 2010년대 전반기(2010/2011년~2014/2015년)에는 13~14%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19/2020년에는 18%로 증가했다.<sup>7</sup>

### 빈곤에 처할 위험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2020년 영국 연금 수급자의 18%는 주택 비용을 제외한 중위 가계 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창출했다.

- 이들 중 절반 이상(전체 연금 수급자의 10%)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 ('심각한 빈곤')의 소득을 얻었다.
- 9%는 중위 소득의 60% 이상 70% 미만('차상위 빈곤')의 소득을 얻었다.

일부 연금 수급자 그룹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 위험이 더 높다.<sup>8</sup>

- 세입자: 개인 세입자의 38%와 사회적 임대 부문 세입자의 36%가 빈곤층인데 비해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노인은 14%만이 빈곤층임.
- 소수 민족 연금 수급자: 아시아인 및 아시아계 영국인 연금 수급자 중 33%, 흑인 및 흑인계 영국인 연금 수급자 중 30%, 백인 연금 수급자 중 16%가 빈곤층임.<sup>9</sup>
- 고령 연금 수급자: 85 세 이상 인구의 22%, 80 에서 84 세 인구의 19%, 65 에서 69 세 인구의 17%가 빈곤층임.
- 여성: 남성의 20%가 빈곤층인데 비해 여성의 16%가 빈곤층임.
- 홀몸 노인 여성: 홀몸 여성 연금 수급자의 27%, 홀몸 남성 23% 및 부부 연금 수급자의 13%가 빈곤층임.

## 물질적 결핍

연간 발행되는 DWP HBAI 보고서에는 65 세 이상 인구의 '물질적 결핍'에 대한 측정값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정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며, 질문 내용은 15 가지 기본적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다룬다. 질문으로는 물이 새지 않는 주거지 확보 여부, 공과금 납부 가능 여부 및 월 1 회 이상 친구 및 가족과의 만남 여부 등이 포함된다. 3,4 개 항목 이상의 응답이 결핍선을 넘는 경우 응답자는 물질적 결핍에 처한 것으로 고려된다. DWP 가 밝힌 최신 추산에 따르면 2019/2020 년에는 65 세 이상 인구 중 약 700,000 명(6%)이 물질적 결핍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조사 시, 응답자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다. 응답자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아니오'라 대답했을 수 있다.<sup>11</sup>

아래 표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와 '아니오'라는 답을 하게 된 주 이유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65 세 이상 인구의 7%는 조리 도구가 고장나도 바꾸지 못한다고 답했고, 주된 이유는 금전 부족이었다. 반면, 건강 문제나 장애 요인은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이(18%)이 월 1 회 이상 사회적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 밝혀졌다.

[표 1. 물질적 결핍 - 65 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에게 부족한 물품 및 용역:  
그리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 2019/ 2020 년]

| 물질적 결핍 항목                       | 65 세 이상인 사람 중<br>'아니오' 응답 비율 | '아니오'라고 응답한<br>가장 일반적 이유 |
|---------------------------------|------------------------------|--------------------------|
| 조리 기구가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음            | 7                            | 돈이 없음                    |
| 정기 청구 공과금을 지불할 수 있음             | 2                            | 돈이 없음                    |
| 집이 습기로 눅눅하지 않음                  | 5                            | 기타 이유                    |
| 집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 가능               | 2                            | 돈이 없음                    |
| 필요할 경우 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          | 7                            | 돈이 없음                    |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사교 활동을 위한 외출을<br>함 | 18                           | 건강/장애 문제                 |
| 집 외의 곳에서 휴가를 보냄                 | 36                           | 건강/장애 문제                 |

추가적으로 65 세 이상 인구의 8%는 예상치 못한 200 파운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저소득과 물질적 결핍의 연관성

앞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연금 수급자 중 18%는 상대적 빈곤층이며 65 세 이상 인구의 6%는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경험하는 65 세 인구는 단 2% 뿐이다. 이는 물질적 결핍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지는 건강 문제 및 기타 장애 요인을 포함한다. 이는 물질적 결핍이 소득만을 고려하는 척도보다 더 광범위한 난점을 반영하는 척도로 작용하게 한다. '아니오'라는 답변의 주 원인이 돈이 아니더라도, HBAI 가 제공한 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둘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65 세 이상 인구의 18%가 최소 월 1 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위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 원인은 건강 및 장애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장 빈곤한 하위 20% 중 최소 월 1 회 이상 외출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가장 부유한 상위 20%(8%)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24%).

## 재정적 난점은 소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DWP 는 소득 빈곤과 물질적 결핍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지원하였다.<sup>13</sup>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재산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수준의 요인들이 저소득층의 지위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견된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건강 상태, 재정 관리, 지역 및 주택 지원, 태도 및 우선 순위 등이 있다.

Age UK 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거나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14</sup> 인터뷰에서는 수입 외에도 비용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전보다 비용이 상승된 영역으로는 공과금, 의료 용품,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및 간병인 등이 언급되었다. 난방비 또한 큰 근심거리로 확인되었다. 노인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일부는 난방이 원활하지 않아 추위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겨울에는 공과금이 아주 많이 나와요. 지금 당장 제 방으로 가시면 많이 춥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도 겨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방이 따뜻해 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인터뷰 응답자나 응답자의 동거인에게 건강 상의 문제가 있거나 특정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남편을 돌보는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간병인]이 수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매일 작동시켜야 해요. 그리고 카테터(장기 내에 삽입하는 튜브형 기구)를 교체하기라도 하면 침대시트를 일주일에 4~5 번도 더 갈아야 해요. 이게 다 돈이에요.'

모든 인터뷰 응답자들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었다. 다음은 응답자의 발언 중 일부이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 빚을 지고 있을 거예요. 이 빚을 갚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도 저는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죽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저소득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저소득 대응 방법으로는 사회 급여 청구를 통한 소득 늘리기, 근로활동 참여하기 (인터뷰 참여자 중 70 대 초반 2 인), 지출 줄이기,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비용 문제로 사교 클럽 초청 거절하기, '견뎌내는' 마인드 갖기 등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감추며 살아갈 수 있다.

###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기

Age UK 에 연락을 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적은 소득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용을 감축하고, 없는 대로 살아가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며, 예기치 못한 지출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ge UK 의 상담센터는 금전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개인이나 가정의 전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90 세에 가까운 홀몸 남성 노인의 집 지붕에 누수가 발생해 집 내부 계단이 젖었다. 해당 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지붕을 고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다. 노인의 가족은 Age UK 가 수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 문의했다.
- 한 80 대 남성노인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문의사항으로, 해당 노인은 전기 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새 두꺼비집을 장만할 형편이 안 되었다. 노인의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소통해왔지만,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까지 집이 춥고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노인이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한 부부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지어 밀린 공과금과 임대료 또한 상당했다.

이 외에도 Age UK 의 캠페인팀에게 연락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연금 수급자로 살면서, 주어진 돈을 볼 때마다 청구금, 식비, 전기 및 가스 요금, 지방세를 지불할 여력이 되고 종종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 충분한 금액인 것인지 의문이 들곤 해요. 주어진 국가연금으로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못가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간식으로 초콜릿이라도 살 수 있다면 기쁠 거예요.”
- “봉쇄령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이제는 남편의 연금으로만 생계를 이어가야 해요. 다른 선택지나 재정적 지원은 없고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출을 줄였습니다. 저는 (나이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 어떤 고용주도 제 나이대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저는 평생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갖 것의 가격이 올라서 이젠 동전 한 푼도 아껴써야 하네요. 겨울 공과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게 두려워요.”
- “[돈만 충분하다면] 그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충분하면 스트레스도 없고, 따뜻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청년들에게 제 자신이 골칫거리가 된 것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제가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느껴질 것 같아요.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빈곤 수준 역시 수십 년 전보다는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2백만 명이 넘는 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처해 있다. 은퇴 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재와 미래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소득 상의 빈곤은 측정과 추적이 가장 용이하지만 노인의 경험을 넓은 범위에서 조명하는 물질적 결핍과 JRF 최저 소득 기준과 같은 다른 척도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Age UK의 정책 제언

- 정부는 노년기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명확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제 3 섹터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 국가 연금 제도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야 하고, 사람들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이 연금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얻을 경우, 자산 조사에 따른 추가 소득 지급이나 겨울 난방비 지원금과 같은 추가적인 일회성 지급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행정관리의 변화 및 혜택 구조 파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낮추는 것 등 현재의 지원을 지속하고 혜택 수준을 넓혀 나가야 한다.
- 재정적 난관은 좋은 사회적 지원, 적절한 가격의 생필품 및 서비스, 정보 접근성, 조언 및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조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창출을 최대화하고 현재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록

### **평균 소득 이하 가구(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 통계**

본 연례 DWP 통계는 빈곤과 저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sup>15</sup> 본 글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평균 가구 소득의 60% 미만 가구 소득을 가진 경우'로 정의한다. 또한 HBAI 통계는 2010/2011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절대 빈곤'을 조망한다.

빈곤선을 고려할 경우, 대체로 가구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이 외에도 50% 미만 및 70% 미만인 가구의 수와 비율도 제공한다.

소득은 소득세, 국가보험 및 지방세 등을 제한 순액이며, 주거비(BHC-Before Housing Cost 또는 AHC-After Housing Cost) 적용 전/후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주거비 적용 후(AHC)' 소득은 임대료, 대출금 이자 및 수도 요금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남은 소득을 뜻한다.

다양한 규모의 가구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균등화(equivalisation)'라고 하는 합의된 척도를 사용하며,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고려해 소득이 조정된다.

또한 DWP는 소득이 £300/1 주(week)인 세 가구의 예를 보여준다. HBAI 통계에 적용되는 균등화 과정을 통해 1인가구는 £448, 자녀가 없는 부부는 £300, 자녀가 있는 부부는 £214 파운드르 조정한다.<sup>16</sup>

## 비고:

본 글의 원 저작물은 Age UK의 'Poverty in later life' 보고서 (2021년 6월)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Age UK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policy-positions/money-matters/poverty\\_in\\_later\\_life\\_briefing\\_june\\_2021.pdf](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policy-positions/money-matters/poverty_in_later_life_briefing_june_2021.pdf)

## Note:

The original source of this article is Age UK's 'Poverty in later life' Brief (June 2021). The brief is available on the Age UK's website at:

[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policy-positions/money-matters/poverty\\_in\\_later\\_life\\_briefing\\_june\\_2021.pdf](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policy-positions/money-matters/poverty_in_later_life_briefing_june_2021.pdf)

---

<sup>1</sup> <https://www.jrf.org.uk/income-benefits/minimum-income-standards>

<sup>2</sup> <https://socialmetricscommission.org.uk/>

<sup>3</sup> <https://www.pensionspolicyinstitute.org.uk/sponsor-research/research-reports/2020/2020-12-08-the-underpensioned-index>

<sup>4</sup> Income-related benefits: estimates of take-up 2018-19, DWP October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come-related-benefits-estimates-of-take-up-financial-year-2018-to-2019>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related-benefits-estimates-of-take-up--2>

<sup>5</sup>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for financial years ending 1995 to 2020, DWP, 202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eholds-below-average-income-for-financial-years-ending-1995-to-2020>

<sup>6</sup> As above, table 6.3tr

<sup>7</sup> As above, table 6.1tr

<sup>8</sup> As above, tables 6.5db and 3.5db

<sup>9</sup> Due to the small number of older people in non-white groups this is based on a three year average

<sup>10</sup> As above, table 6.10db

<sup>11</sup> As above, table 6.11db (AHC)

<sup>12</sup> Age UK calculation using <https://stat-xplore.dwp.gov.uk/webapi/jsf/login.xhtml>

<sup>13</sup> Kotecah, M. Arthur, S and Coutinho, S (201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er poverty and material deprivation. DWP

<sup>14</sup> Struggling on Experiences of financial hardship in later life, Age UK 2019, [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reports-and-briefings/money-matters/lr-6064-age-uk-financial-hardship-final\\_v1.pdf](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reports-and-briefings/money-matters/lr-6064-age-uk-financial-hardship-final_v1.pdf)

<sup>15</sup>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for financial years ending 1995 to 2020, DWP, 202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eholds-below-average-income-for-financial-years-ending-1995-to-2020>

<sup>16</sup>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ensioners-incomes-series-financial-year-2019-to-2020/pensioners-incomes-series-background-information-and-methodology-financial-year-2019-to-2020>